

제 2 차 대한두경부 종양학회

— 연 제 초 록 —

< 1 >

미세수술로 복합조직 이식술을 이용한 두경부 종양의 재건

국립의료원 성형외과

오 석 준

국소피판이나 근피판이 여전히 두경부 재건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두경부의 심한 결손부를 재건하는 데는 미세혈관 수술기법을 사용하는 원거리 조직의 이식능력이 재건외과 의사들에게 가능하게 됨으로서 재건영역이 넓어지게 되었다.

저자는 1981년부터 1985년까지 국립의료원 성형외과에서 경험한 두경부 종양 제거후에 남은 심한 결손부를 미세수술에 의한 복합조직이식술로 재건한 13예를 증례 분석과 더불어 보고드리는 바이다.

증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13예의 환자중 12예의 환자에서 성공하여 92%의 성공율이었다.
- 2) 13예중 7예는 악성종양이었고 6례는 양성종양이었다.
- 3) 재건의 빈발부위는 안면부와 하악이었다.
- 4) 14개의 유리복합조직은 8곳의 각기 다른 공여부에서 얻었고 6가지 종류의 조직구성으로 이루어졌다.
- 5) 가장 빈번히 이용된 수용혈관은 표재성 측두혈관과 안면혈관이었다.
- 6) 평균 수술시간은 10시간이었다.



< 2 >

후두암 광역절제술후의 경부 식도 재건에 공장 유리 이식편 (jejunal free flap)을 이용한 증례보고

연세대의대 부속병원 성형외과*, 일반외과**, 이비인후과***

박 철* · 이영호* · 지훈상** · 홍원표***

후두암 광역 절제술이 후두뿐 아니라 식도의 일부분을 포함하게 될 때 수술후 초래되는 식도의 결손을 재건하는 방법으로 여러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현미경하의 미세혈관 문합술의 발달로 장, 특히 공장의 일부를 그에 분포하는 혈관과 함께 분리하여 경부혈관에 문합하고 식도 결손을 재건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공장유리 이식편 사용의 이점은 식도와 비교적 유사한 기관으로 대체한다는 점 이외에도 큰 식도 결손부를 일차에 재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에서는 후두암이 침윤된 경부식도를 광역절제한 후 동시에 공장유리 이식편으로 일차로 재건함에 있어 이비인후과, 일반외과, 성형외과가 동시에 참여함으로써 수술시간의 단축은 물론, 수술 후 보다 양호한 결과를 얻었기에 문헌보고와 함께 증례보고하는 바이다.

< 3 >

안면부 재건에 이용한 도서형대흉근피판의 치험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송중원 · 강진성

안면부 종양을 절제한 후에 생긴 광범한 결손을 미용

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만족스럽게 재건해 주는 일은 종양의 절제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미세수술기법에 의한 유리조직이식과 근피관 수술은 두경부 조직결손의 재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유리조직이식보다도 국소적 근피관 수술이 피관생존에 있어서 안전성 있고 술식이 안이하다. 그 중에서도 대흉근피관은 혈액공급이 풍성하고, 回轉弧가 커서 안면부의 조직결손에 안성맞춤일 때가 많다. 그리고 조직양이 충분하여 결손을 여유있게 채우고 다듬을 수 있어 더욱 좋다.

저자들은 안면부에 발생한 거대한 기저세포암 1예와 보존악법으로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만성상악골수염을 동반한 거대한 섬유성 종괴 1예를 절제함으로써 생긴 광범한 조직결손을 도서형대흉근피관으로 재건하고 얻은 경험을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 4 >

두경부종양 치료 후 발생한 결손의 피관 및 복합조직을 이용한 즉시재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탁관철 · 이영호 · 유재덕

1597년 Tagliacozzi에 의해 처음으로 피부관의 개념 및 임상 이용례에 대한 기술이 있는 후 두경부 재건을 위한 수많은 술기들이 발표되어 왔고 최근에는 근피관 이식술, 미세혈관문합술 등이 급격히 발전되어 유리 피관이나 여러가지 조직을 한번에 이식하는 유리복합조직이식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두경부의 악성종양이나 광범위한 절제를 필요로 하는 양성종양의 외과적 치료에 있어서 종양의 광범위절제와 아울러 결손의 재건을 위해서는 비교적 커다란 피관이나 복합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래에는 이러한 종양의 광범위절제와 동시에 절제 즉시 그 결손의 재건을 시도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종양치료 후 결손의 즉시 재건이 종양의 재발을 일찍 감지할 수 없고 종양세포가 주위조직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광범위한 재건이 즉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고 완벽한 절제의 기회가 많아지게 되고 또한 적절한 미용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해서 대부분의 두경부종양 환자들은 이러한 광범위절제와 함께 동시 재건을 원하게 된다.

저자는 지난 3년반 동안 두경부 악성종양이나 광범

위절제를 필요로 했던 양성종양환자 13예에서 광범위절제와 동시에 그 결손을 피관이나 복합조직이식으로 재건하여 두경부종양의 치료원칙인 “높은 완치율, 적은 유병율, 적절한 기능의 유지, 정상에 가까운 외형의 유지”에 잘 부합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그 증례들을 보고하는 바이다.

< 5 >

Cancer of the Nasal Fossae

David J. Seel, M.D. FACS, Bong Ok Yoo, M.D.,
Yoon Kyu Park, M.D.

Department of General Surgery, Presbyterian
Medical Center, Chonju, Korea

Cancer arising in the nasal fossae, that is, in the nasal cavity and paranasal sinuses, is one of the most treacherous malignant neoplasms to afflict human beings. Although not a major category (2.2% of all cancers in our registry), it demands thorough diagnostic evaluation and aggressive combined surgical and radiotherapeutic management. A review of 306 primary neoplasms arising in the nasal fossae during the past 22 years yielded 68 cases which underwent surgery with the intent to cure. Of these 68 cases, 91% were advanced Stage III or Stage IV tumors. In all but one case the surgical procedure involved maxillectomy which was total or extended total in 66 cases. This material is analyzed in terms of epidemiology, pathology, staging, management, recurrence rate and survival. Three methods of therapy employed are suitable for comparison: surgery alone; preoperative radiation followed by surgery; and surgery followed by postoperative radiation. A preliminary review indicates that the best results (40% disease-free 2-year survival) were obtained by surgery alone; however only 40% of patients in this management category had advanced Stage IV disease, whereas approximately 60% of those in the preoperative or postoperative combined therapy categories were Stage IV lesions. The recurrence rate overall was an appalling 68.2% and the overall